"아직도 이메일만 고집한다면 당신은 구세대 이십니다"

'즉각 회신' 오는 온라인 채팅·텍스팅이 젊은층 대세

야후·핫메일 이용자 급감…인터넷 회사 대대적 개보수

"이메일을 즐겨 이용한다면 당신은 구세대에 속합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텍스팅이 젊은 층의 대세로 확고히 자리잡으면서 이메일의 지위가 점차 위협받고 있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주요 인터넷 회사들은 '즉각적 회신'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메일 서비스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에 착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 전했다.

젊은층들은 이메일의 문제점으로 계정에 로그인하고, 제목을 달아야 하고, 이후 메일을 보낸 뒤 답장을 받으려면 몇시간을 기다려야 하거나, 답장이 안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편지 마지막에 "친애하는 누구로부터"와 같은 격식을 차려야 한다는 것도 이들을 지루하게 만들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레나 제니(17)는 "텍스팅은 매우 빨라서 메시지를 보내자 마자 답장이 오기도 한다"며 "그러나 이메일은 너무 느리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이들 젊은층의 세계와 발을 맞추기 위해 메시지 위에 제목란을 없애기로 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제목을 대부분 공란으로 남기거나, '하이(hi)', 또는 '요(yo)'와 같은 정보와 관계없는 단어로 채우기 일쑤였다고 한다.

또 참조란인 'cc'와 'bcc'란도 없앴으며 엔터키를 치면 곧바로 메시지가 발사되도록 속도감을 높였다.

페이스북의 앤드루 보즈워스 엔지니어링 국장은 "메시지 보내기 기능의 미래는 더욱 실시간화되고, 보다 대화의 성격이 강화돼야 하며, 더욱 캐주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메일의 쇠퇴는 수치가 증명하고 있다.

조사회사인 콤스코어에 따르면 야후, 핫메일 같은 미국의 대표적 이메일 사이트들은 지난해 11월 최고의 이용자수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 추세로 접어들어 최근에는 최고치에 비해 6%가 줄었고, 특히 12~17세 청소년층의 이용 감소율은 무려 18%에 달했다고 한다.

유일하게 계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구글의 G메일로 전년 대비 10%가 증가했다.

뉴욕 럿거스대의 제임스 카츠 교수는 "젊은 세대와 이메일은 서로 맞지 않는다"면서 "비공식적 언어와 약어를 사용해 빠른 의사소통을 원하고 있는 이들은 에티켓을 요구하는 이메일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2월 25·31일, 1월 1일 통화품질 이상無

SKT·KT·LGU+ 3사 특별 소통기간 운영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음성통화와 문자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3일 통신 3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부터 내년 1월1일까지를 특별 소통 기간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특히 크리스마스인 25일, 31일, 내년 1월1일에 통화 및 문자 송수신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원활한 트래픽 수용을 위해 지역별 상황실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특별 소통 기간 중 전국적으로 460여개 기지국의 채널 카드를 늘리는 한편 100여개 이상 기지국의 전송로를 추가로 확보했다.

KT도 시스템 점검과 자원 증설 및 재배치, 이동기지국 운영 등을 통해 통화품질을 확보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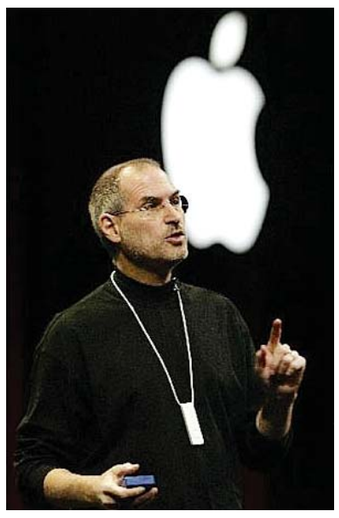
KT는 1월3일까지 전국망 관제 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 긴급 복구 기술지원 체계 및 비상 출동 체제를 가동한다. 이미 지난 20일까지 통화량 집중 지역에 대한 점검 등을 완료했다.

LG유플러스도 1월5일까지 비상체제에 돌입해 사전 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현장 요원을 증원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3년간 24일에는 음성발신 건수가 문자 발송 건수보다 많았고, 31일에는 문자발송 건수가 음성발신 건수보다 3~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했다.

통신 3사는 공통으로 타종 행사가 열리는 서울 보신각 주변 및 해돋이 인파가 집중되는 강릉 정동진 등에 이동식 기지국을 배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英 FT 선정 올해의 인물은 스티브 잡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 최고경영자(CEO)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 23일 선정됐다.

FT는 올해 1월 잡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예르바 부에나 센터 무대를 걸어나와 태블릿 PC인 아이패드를 선보였던 순간을 현대 기업역사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복귀'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소개했다.

이 자리는 간 이식 수술로 6개월간의 병가를 마치고 지난해 6월 야윈 얼굴로 업무에 복귀한 그가 세간의 시선을 끌었던 신제품을 공식 소개하는 무대여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애플과 잡스의 성과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관련업계에서는 신제품을 둘러싸고 무성한 소문이 나돌았지만 이날 그의 복귀는 '완벽'했고 아이패드는 소비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신문은 평했다.

그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시기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26)보다 어린 나이였다.

퍼스널컴퓨터를 고안하고 애플의 기업공개로 업계의 '록스타'로 떠올랐던 때 그는 25세였다.

30여년이 지난 이제 그는 거인이 됐고 강적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자선사업가로 활동하는 만큼 그는 더욱 업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신문은 잡스가 오늘의 자리에 오른 요인을 크게 실용주의와 완벽주의로 꼽았다.

그의 밑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잡스를 '엄격한 감독자'라고 말했다며 이는 업무에 있어 가차없이 몰아붙인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가 "더이상 좋은 기술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까지 제품 개발에 열을 올린다는 것이다.

애플을 최근 이직한 직원들은 "그는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마케팅 부서에 있는 것처럼 일한다"며 "결점을 찾는데 집착할 정도로 실용주의가 엄청나다"고 말한다.

그는 특히 요즘 같은 불황기에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

양부모의 창고에서 사업을 시작한 그는 1976년 스티브 워즈니악과 애플컴퓨터를 설립했다. /연합뉴스

남극 얼음 뚫은 '아이스 큐브'

미국물리학회가 남극 대륙 얼음에 2.4㎞의 구멍을 뚫어 설치한 세계 최대 '얼음 망원경' 아이스큐브. 아이스큐브의 광센서 5160개는 얼음 아래에서 중성미자를 검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연합뉴스

동족에 먹힌 네안데르탈인 가족 유골 발견

4만9000년 전 동족에게 잡아먹힌 네안데르탈인 일가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들이 스페인에서 발견됐다고 BBC 뉴스가 보도했다.

바르셀로나 진화생물학연구소 과학자들은 스페인 북부 아스투리아 지역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뼈에서 의심할 수 없는 동족포식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했다.

심하게 파편화된 뼈의 주인들은 어른 6명과 어린이 6명으로 추정되며 두개골과 턱을 비롯한 많은 뼈에 절단을 비롯한 동족 포식의 흔적이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진은 유골들이 동굴 안에서 발견되긴 했지만 생전엔 평지에서 살았으며 비참하게 죽은 뒤 자연적으로 땅이 꺼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들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한 결과 이 집단이 한 가족으로 밝혀졌으며 남자 어른 3명은 같은 모계에 속하고 여자 어른 3명은 각기 다른 어머니에서 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가족이 보여주는 '부거제'(父居制)는 현생인류에서도 흔히 보이는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합뉴스